

강옥경 · 유지혜 약사, 한국병원약사대회서 수상



강옥경

유지혜

전북대학교병원
은 약제부 소속
강옥경 약사와
유지혜 약사가
‘2025년 한국병
원약사대회’에서
각각 대한약학회
장 표창과 미래
병원약사상을 수
상했다고 밝혔다.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약학 발전에 기여한 병원약사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약사회장 표창은 약사 권익 신장과 위상 강화에 기여
한 약사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강옥경 약사는 2022년 전북
대병원에 입사한 이후 당뇨병학과 당뇨병교육자와 병원약
사회 임상약동학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환자와 병원약
사회 대상으로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또한 정맥영양 및 내분비 국가자격 전문약사를 취득하고,
의약품관리위원회와 전문분야협력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전문 약료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관리에 기
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미래병원약사상은 최근 5년간 학술활동에서 우수한 성과
를 거둔 만 45세 이하 병원약사에게 수여된다. 유지혜 약사
는 2023년부터 응급실과 응급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적
절한 약물 부여를 위한 중재 활동을 지속해 왔다.

유 약사는 입원 환자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약물 복용을
줄이고 복약순응도를 높여 부작용 예방과 치료 효과 향상
에 기여했으며, 다제약물관리 상담약사로서 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지원해 왔다.

두 약사는 꾸준한 포스터 발표와 약사 대상 교육·강의
활동을 통해 전북대병원 약제부의 학술적 위상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오상근 기자

소방수 신임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장 부임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2026년 1
월 6일자로 소방수 소장이 새로 부임
했다고 밝혔다.

소 소장은 전북 남원이 고향으로 산
림청에 입사한 이후 30여년 동안 다양
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
다.

서부지방산림청과 국립자연휴양림관
리소 등에서 근무했으며, 직전에는 익
산산림청공관리소장을 거치는 등 산림행정과 재난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소방수 소장은 “각종 산림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해 지역사
회에 도움이 되는 산림행정을 펼치겠다”라며 지역민의 관
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무주국유림관리소는 남원, 무주, 진안, 임실, 장수를
관할구역으로 산림경영, 산림보호 및 국유재산관리 등 다양
한 산림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혜경 전북대 명예교수, 후학 양성 1000만원 기부

한국 여성학 연구를 선도해 온 김혜경 명예교수(전북대
사회학과) 대학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발전기
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김혜경 명예교수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의 가족사와 젠더 사회학,
가족정책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온 국내의 대표적인
여성학자다.

특히 김 명예교수는 전북대 여성연구소장과 제33대 한국
여성학회장을 역임하며 한국 여성학의 발전을 이끌었고, 한
국여성단체연합 복지위원과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이사를
맡아 지역 여성운동과 현장 실천에 앞장서는 등 이론과 실
천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김재훈 기자



산내면 지사협, 착한가게 환관 전달식

남원시 산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한웅,
위원장)는 관내 거시기 식당(대표 허부호)에 착한 가게 22
호점 환관을 전달했다.

거시기 식당은 30년간 산내면 반산 상가에서 요식업으로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단골식당으로 평소에도 지역 주민들
을 위한 봉사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번 착한 가게 가입을
통해 정기적인 후원을 약속하게 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심 다해 목표 이루겠다”

새해 진안군 신년인사회 ‘성윤성공’ 다짐

2026년 진안군 신년인사회가 6일 오전 10시 진안을
반대비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진안군에향본부(본부장 우태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창민 국회의원, 전춘성 군수, 동창읍 군의
장 군의원, 전용태 도의원, 윤성정 전북에향본부 총재,
이웅진 재경진안군민회장, 김종철 재경진안군민회장을
비롯해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인사와 서로를 응
원하는 덕담을 나누며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 및 국민약례, 신년사, 축사, 축
하영상제시지 시청, 신년 덕담, 2026~2027 진안방문
의 해·2026 전북자치도민체육대회 성공 기원 퍼케이
크 커팅, 간배 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태만 본부장은 “도전과 진취적인 기운이 넘치는 병
오년 새해를 맞아 붉은 말이 힘차게 대지를 달리는 것처



럼 진안군이더 힘차게 도약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진심을 다해 약속을 지키며, 목표한
성과를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성윤성공’을 진안군 올해
의 사자성어로 정했다”며 “진안군의 새로운 도전, 시작
된 변화의 길에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13대 전북자치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선출

민국열 · 김성순 연합회장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도청에서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을 선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
다.

이번 선출로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남성연합회장에는
완주 민국열 대장이, 여성연합회장에는 정읍 김성순 대
장이 각각 선출됐다.

연합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를 대표해 지역 의
용소방대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 확
산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로, 전북 지역의 안전
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책무를 맡게된다.

민국열 남성회장은 2016년 입대하여 2023년 의용소방대장,
2024년 완주 연합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내 화재 등 크고
작은 재난대응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특히 2024년
7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
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생업을 뒤로한 채 복구활동에 전념
하는 등 지역안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또한, 김성순 여성회장은 2004년 입대 이후 20여 년 동안
화재와 풍수해 등 각종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
과 재산을 지켜왔으며, 독거노인 돌봄과 취약계층 반찬나눔
등 이웃을 위한 따뜻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공
로를 인정받아 2025년 11월 ‘정읍시민의 장’ 중 ‘애향봉사장’



을 수상했다.

민국열 김성순 연합회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
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용소방대가 하나로 힘을 모
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의용소방대는 재난 발생 시 도민과 가
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핵심 안전 조직”이라며,
“이번 제13대 연합회장 선출을 계기로 도내 의용소방대가
더욱 결속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길 기
대한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지역 공동체 조성 보탬 되길”... 수년째 기부로 지역사회 사랑 실천

고창 성승면 소원정 노인회장

고창군 성승면 소원정 노인회장이 수년째 꾸준한 기부로
이어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성승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소원정 노인회장은 “성승면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정든
고향”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서
로 돕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나눔은 개인의 실천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성승면 이장단협의회를 비롯해 여러 사회단
체와 인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부와 후원을 통해 지역
사랑을 실천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성승면 적십자봉사회는 최근 성승경로당에 어르신
들의 복지 증진과 편의 제공을 위해 30만원을 기부했다. 해
당 기부금은 경로당 운영과 어르신들의 여가 및 복지 향상
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읍 황토현권역 영농조합법인, 이웃사랑 실천

정읍시는 황토현권역 영농조합법인(대표 김호인)이 지난
5일 시청을 방문해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법인이 운영하는 ‘어울림센터’의 수익금 일
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황토현권역 영
농조합법인은 지난 2019년부터 해마다 잊지 않고 꾸준히 나
눔을 실천해 오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처
해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고 희
망 나눔 성금을 기탁해 이웃사랑을 품소 실천해 주신 황토
현권역 영농조합법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국진 성승면장은 “소원정 노인회장님을 비롯해 성승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주민과 단체들의 자발적인 나눔이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며 “기부해주신 소
중한 뜻이 면민 모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대승종합건설, 정읍시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승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 정재원)는 지난 5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300만원을 정읍시에 전달하
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대승종합건설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다하며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대승종합
건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읍시 지정기탁을 통해 관내 저소득가구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경로당 소통간담회 첫 회차 개최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6일, 보절 다음센터에서 경로당 노
인회장 및 사무장·시장 소통간담회 첫 회차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절면 경로당 회장과 사무장 60여 명이
참석해 2026년 노인복지 정책 전반을 공유하고 경로당 운영
과 관련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2026년 노인복지 주요사업 제작 영상 △스마
트경로당 홍보영상 시청으로 시작해, 어르신들이 정책 내용
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이후 자유로운 분위
기 속에서 시장과 직접 소통하는 간담회가 이어졌다.

특히 소통간담회 시간에는 경로당 운영비 부담 시설 보
강 필요성, 경로당 식사 지원 사업, 취약노인 돌봄과 관련
한 건의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의견들이 활발히
제시됐다.

남원시는 이번 보절 다음센터 간담회를 시작으로 1월 8일
이영면, 1월 12일 5개 동 지역(동충동, 축항동, 노암동, 금
동, 왕정동), 1월 13일 주천면, 1월 15일 수지면, 1월 16일
송동면, 1월 19일 2개 동지역(향교동, 도봉동) 1월 20일 금
지면, 1월 21일 대강면 등 읍면동을 순회하며 총 9회의 소
통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회차별로 수렴된 의견은 종합 검토를 거쳐 2026~2027년
노인복지 우선 추진 과제로 정리하고, 경로당 운영 여건 개
선과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금강공사 · 노조, 익산시에 장학금 기탁

새해를 맞아 익산시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나
눔의 손길이 전달됐다.

익산시 향토기업인 금강공사(대표이사 최은규)는 6일 시
청을 방문해 (재)익산시 장학재단에 장학금 837만원을 기
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금강공사 임직원과 노동조합원이 십
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금강공사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4,80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하며, 지역 우수 학생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
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새해를 맞아 나눔을 실천한 금강공사의 이번 기탁은
최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산업포장
을 수훈한 최은규 대표이사의 경영 철학이 반영돼 의미를
더했다.

최 대표이사는 “기업의 성장은 지역사회와 지지와 인재
육성에서 비롯된다”는 신념 아래 노사와 함께하는 사회공
헌 활동에 힘쓰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무주읍 오산교회, 무주군에 장학금 기탁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오산교회(담임목사 박양수)에서
6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
탁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박양수 목사는 “무주군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교육 발
전에 이바지하교픈 성도들의 뜻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라
며 “앞으로도 교회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이 흔들리
지 않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동반자가 되길 소망한
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 무주읍 오산교회에 위치한 오산교회(대한예수
교 장로회)는 1958년 1월에 창립된 곳으로, 지역에서 복음
전파와 함께 주민들을 위한 사회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
며 상생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